光州日報

제1807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5월 27일 (음력 4월 23일) 화요일

AI·광우병 엎친데 고유가·고물가 덮쳐

영세 자영업체 줄도산 위기

광주·전남 음식점·목욕탕 등 속속 폐업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음식점을 비롯, 목욕탕·찜질방·사우나 등 자영업자들이 폭등하는 물가와 기름값, 인건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광우병 파동에 이어 기름값과 원재료 값이 폭등하면서 고사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모든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업주들의 푸념이다.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올들어 일반음식점 중 폐업한 곳은 5월 현재 모두 636개에 달한다.

이는 올해 광주시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1만4천555개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폐업업소 554개와 비교해 볼 때 14.8% 늘어난 82개소에 이른다 구별로 보면 북구의 경우 지난해 166개 업소가 폐업신고를 했으나 올해는 218개로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광산구 119개→138개 ▲동구 81개→88개 순이었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목포시는 지난해 1~4월까지 음식점 261개소가 폐업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316개가 문을 닫았다.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11개에서 올해는 같은 기간 14개소로 증가했고, 영암군도 10개에서 20개소로 2배 늘었다.

특히 음식점들의 폐업 시기는 기름값 인상과 AI 및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3~5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폐업신고를 한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휴업을 한 음식점까지 포함하면 영업을 포기한 음식점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의 자체 조사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시지회는 최근 닭과 오리를 판매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휴업 여부를 조사했다. 이 결과 광주지역 닭 판매업소 661개 중 102개 업소가, 오리 판매업소 178개 중 53개 업소가 임시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을 판매하는 업소들의 15.4%가, 오리를 판매하는 업소들의 30.0%가 영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고유가 여파는 목욕탕과 사우나·찜질방에까지 닥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고유가를 견디지 못해목욕업소의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서구 A사우나 주인 김모(37)씨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기름값이 매달 100만원 이상 추가로 드는데다 소비심리 위축과 때이른 더위로 손님이 끊겨 영업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희종·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쇠고기 고시 연기 28일~30일께로

검역단 귀국 "문제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가 당초 27일에서 28일~30일께로 연기된다.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아직 남아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 날짜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고시한다는 계획 하에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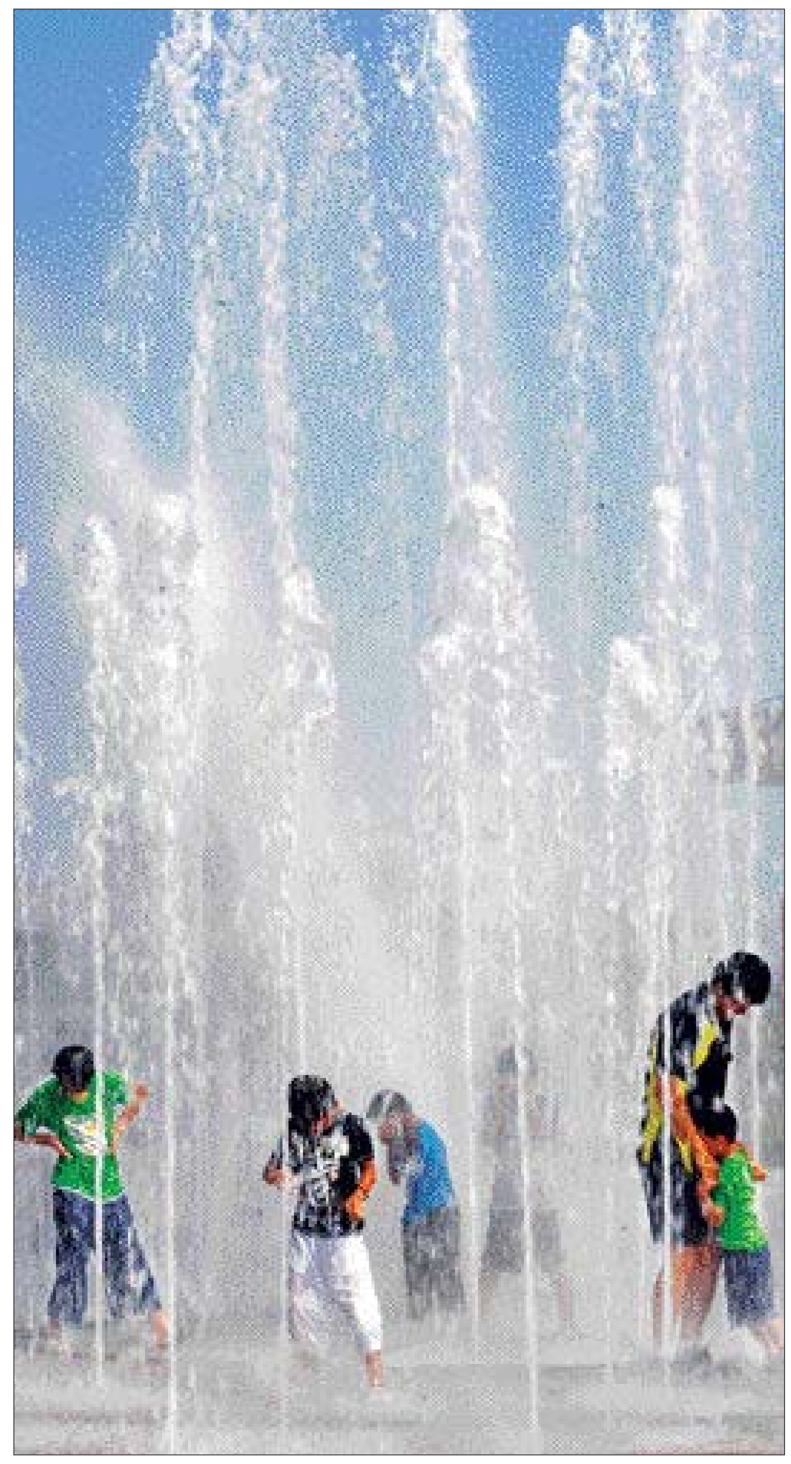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28~30일 사이 확정된 고시 내용의 관보 게재를 요청(고시 의뢰)하고 이 같은 고시 의뢰 사실을 정운천 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알릴 것으로 보인다. 언론 브리핑 당일 지난달 20일과 이달 5일에 이어 추가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국내 축산업계 지원 관련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앞서 미국 작업장의 위생·검역 상황을 살피기 위해 지난 12일 현지로 떠났던 특별점검단은 26일 오후 4시50분 시카고발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미국 쇠고기 현지 점검단장인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미국 방문중 점검 대상 작업장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 31.2도 … 더위 식히는 음악 분수



올 들어 두번째로 더운 날씨를 보인 2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음악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장난을 하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은 섭씨 31.2도를 기록, 지난 3일 31.4도에 이어 두번째로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 관련기사 8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社告

"사랑과 희망을 보냅시다"

미얀마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와 중국 쓰촨성 일대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이 폐허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독자 여러분의 온정을 담은 의연금을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성금은 신문사에서 접수하지 않으므로 아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금기간 : 2008년 5월 27일(화) ~ 8월 23일(토)
■ 보낼 곳 :
가. 중국 지진피해 이재민 지원
▲ ARS 060-700-1001. 통화당 기금 2,000원 (1일 3통화 가능)
▲ 모금계좌번호(예금주 : 대한적십자사)
- 국민은행 004401-04-045244
- 우리은행 1005-201-245690
- 신한은행 100-020-025050
- 기업은행 148-013356-01-047
- 농 협 386-01-019136
※ 달러송금 전용계좌 : 우리은행 1081-000-340611
나.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이재민 지원
▲ 모금계좌번호(예금주 : 대한적십자사)
- 우리은행 1005-201-245688

光州日報社 · 한국신문협회

광주 U대회 유치 결정 D-4

PT 준비·표심 잡기 총력

市·정부 대표단 29일 출국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결정이 나흘(현지시각 기준)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유치위원회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FIS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는 오는 31일 열리는 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 대비하기 위해 대회 유치를 신청한 광주를 비롯, 러시아 카잔(Kazan), 스페인 비고(Vigo) 등 3개 도시의 유치위 관계자들과 집행위원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2013 광주하계U대회 유치위는 3개 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지난 22일 FISU 총회가 열리는 브뤼셀 플라자호텔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이하 PT)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선발대로 파견된 광주시와 유치위 관계자들은 매일 전략회의를 갖고 경쟁국의 움직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지사무소에 따르면 26일부터는 카잔과 비고의 유치위 관계자들도 속속 입국해 PT 준비는 물론 집행위원들을 대상으로 표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윤석 경제부시장, 유치위 관계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아프리카 및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광주 지지를 호소하며 마지막 유치활동을 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 시와 유치위, 후원회, 언론, 의회, 광주지역 구청장, 홍보대행사 관계자 및 대학생 등 120여명 규모의 유치단을 꾸려 벨기에 현지로 파견한다. 이들은 총회장 주변에 머물며 광주 유치의 당위성과 여건, 인프라 등을 적극 홍보한다.

FISU 총회 정부 대표단 단장을 맡게 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29일 대표단을 이끌고 브뤼셀로 떠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오늘 중국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과 칭다오(靑島)를 국빈 방문한다.

이번 중국 순방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 순방에 이은 '4강(强) 외교'의 일환으로, 러시아만 방문하면 주요국 외교의 첫 단락이 매듭지어 지게 된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당일인 27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하는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